

# 인과 벗어나 인연 살필 수 있어야

자(慈)란 이를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버지 않는 것이고, 비(悲)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버지 않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입장에서 자비심을 말할 때는, 밧고여락(拔苦與樂)이라 해서 고통 뽑아내어 즐거움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중생이 고통 속에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즐거움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낮게 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니, 그 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중생들의 마음에는 불꽃이인다.

하지만 선사들은 좀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런 초보적인 마음가짐을 다 지나서 이제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아예 고통 자체를 훌쩍 벗어 나고 싶은 사람을 상대하여, 그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진리 당치를 보여주기 위해, 경우 따라서는 상체를 쭉 벌려서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 전도몽상을 깨우기 위해서는, 가끔은 방(棒)이나 할(喝)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다.

자비란 것도 참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높은 차원의 자비는 불이의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일심의 본분자리에는 중생만 없는 게 아니라 부처까지도 쌍으로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자비로 무연자비라 한다. 이를 부처도 있지 않고, 제도할 중생도 있지 않다. 그것은 자비라 할 것도 없는 자비다.

그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할 것인가.

어떤 법을 설하는 게 설하는 게 아니다. 관음보살이 법을 설하면,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그러니까 무설설(無說說)이고 불문문(不聞聞)이다. 설한 바 없이 설했는데, 모하계도 일체중생은 들은 바 없이 듣고 변화를 한다. 본래 그러한 데에 맡았어 계합하는 것이라서, 따로 뭉가를 언었다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늘 하심하고 항상일로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큰스님으로부터 공부를 점검받고, "이제 제가 스님 처소를 떠나 어디 다른데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였다. 큰스님은 기꺼이 소개장을 써주었다. 소개장이란 "내가 이 사람 인정하고 보내는 거니까, 당신도 살펴보고 남한테 이익 되게 써먹시오."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 간 곳의 어른스님께 소개장을 보여드리면, 대접을 받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개장을 내보이지도 않고, 그저 평대중

## 수불 스님의 안릉록 선해 (17)



범어사 주지

높은 차원의 자비는 불이의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무연자비'

수행자라면 부끄러움 알고 빠져리게 정진하면, 갈수록 넉넉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이 공부다

불법이 중심에 딱 서면, 마치 매사가 버릿줄을 잡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풀려나간다.

인과를 훌쩍 벗어나

인연을 살피 쓸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비로소 굳건한 정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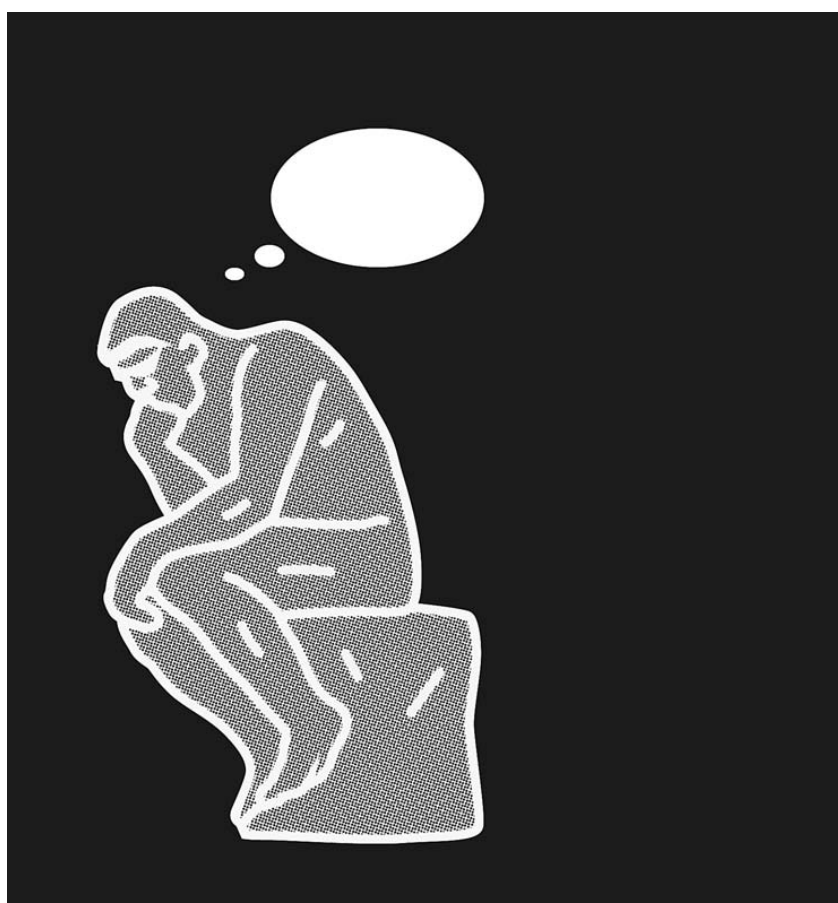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으로 선방 구석에서 정진만 하였다. 어느 날 예전의 큰스님이 그곳을 들리게 되어, 당신 도반인 방장에게 "과거에 내가 소개장을 써줬는데, 그 수좌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스님은 선방의 말석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 하니, "스님이 써주신 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지만, 그거 내밀지 않아도 제가 더 수행 잘하고 정진 잘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공부인이라면 이렇게 어떤 일인지 감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하나 안 하고 평상으로 마음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야 한다. 항상 부끄러운 줄을 알고 빠져리게 정진하면, 갈수록 넉넉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이 공부다. 때가 되면 송곳이 바짓가랑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듯이, 모양 쓰게 되어있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다.

이러한 자비를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 얻을 수 있겠는가? 견해란 스스로 본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다."

본래 한 법도 없는 자리에서 홀연히 일어난 무연자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방삼계에 꼭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어떤 인연 따라서 살피지는 자비도 자비이지만, 인연과 아무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무연자비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설명할 수 없는 도리에 깊게 사무쳐서 빠져리게 '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는 이것이 참으로 깊은 은혜로구나. 감사합

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근본인장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다. 불법이 중심에 딱 서면, 마치 매사가 버릿줄을 잡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풀려나간다. 이것이 평상심으로 인연 따라 최선을 다 하면서 세월을 잘 보내는 모습이다.

### 13. 정진이란?

배후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정진(精進)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정진도 자비처럼 여러 수준이 있다. 중생의 눈높이가 다르니까, 여러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낮은 근기에게는 우선 앉아배기는 것이 정진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거기서 좀 나아지면 선전과 지혜를 쌍수(雙修)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을 논론 최상의 근기가 하는 정진은 귀신도 엿볼 수 없다. 다시는 빛나가지 않는 안목을 갖춰서 온갖 변화를 다 수용하고, 백전 삼매 속에서도 여여부동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다. 닦는 바 없이 닦아, 그 닦음 없는 닦음을 조용히 수용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닦으면 닦는 대로 인과에 걸릴 것이고, 안 닦으면 안 닦는 대로 인과에 걸릴 것이다. 인과를 훌쩍 벗어나 인연을 살피 쓸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때야 비로소 굳건한 정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 이 금광명경(金光明經)은 모든 경전 중 '왕'

〈금광명경〉

말도 안 되는 소리?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은 대단히 생소한 경전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신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를 제외하면 이 경전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신 분이려면, 이 〈금광명경〉은 〈금고경(金鼓經)〉으로도 불리우는 경전이며,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경전이고, 〈인왕경〉과 함께 호국(護國)의 경전으로 떠받들어 왔다는 것, 일본에서는 스님이 되려면 〈법화경〉과 함께 이 경전을 외우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 정도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생소한 경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하다면, 어쩌하여 오늘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경전 중에서 왕이다"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다. 〈화엄경〉이 모든 경전에서 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금강경〉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슨 소리인가 (아함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원음(原音)이자 육성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찌 가만 있겠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시는 목소리로 들리는 듯 하다. 만약 그런 말을 내 자신이 했다고 한다면, 나는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도 내겐 탈출로가 없지 않다.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바로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의 제일 앞머리, 즉 서품(序品)의 계승에서 첫 구절이 그렇다.

〈금광명경〉은 〈금광명경〉이 왕이다

그렇다. 모든 경전은 그 경전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금광명경〉을 설하면서 〈법화경〉이 제일이라고 칭찬하고, 〈법화경〉을 설하면서 〈법화경〉이 〈화엄경〉보다 좀 못한 경전이라고 설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실로 〈금강경〉보다 〈천수경〉이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천수경〉을 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강경〉만 계

속 설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천수경〉을 설할 때에는 〈천수경〉이야말로 "위엄이 높고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 경전을 듣는(읽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서, 그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경전이면 그 경전을 설할 때에는 그 경전이 제일이라, 경전 중에서 왕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찬탄해 가면서 경전을 설하시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내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전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태도를, 경허 스님은 '편찬(編撰)', 즉 치우쳐서 찬탄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편찬한다는 사실을 경허 스님은 어떻게



그림 · 박구원

게 아셨을까?

그 경전만이 제일이라고 설하는 경전만을 읽지 않고, 많은 다양한 경전들을 읽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역대 강사스님들 중에서 가장 폭넓은 독서를 하신 분이 경허 스님이 아닐까 싶다. 강원의 이력과정에는 없는 유식이나 인명(因明, 불교논리학) 책까지 읽으셨기 때문이다.

맞다. 지금 읽는 그 경전이 최고의 경전이다. 다만, 그 최고의 경전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무슨 무슨 최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고 홍보하는데, 사실은 '최우수대학'이 단 하나만이 아닌 것처럼 최우수 경전도 단 하나만은 아니다.

하나의 경전을 최우수로 믿고 읽는 마음과 그렇게 최우수의 경전이 또 존재한다는 열린 마음의 공존, 그것이야말로 경전 읽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이 아닐까 싶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체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고성능 구직맥마이크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W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미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직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4채널 헤드셋 1세트 · 사생활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팩스 (02)2601-8284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